

# 철저한 ‘안전관리 · 고품질 제품’ 공급 ‘농업인 실익 증진’에 기여

- 교육홍보부 -



“다양한 제품의 대량생산 및 저가 안정공급 체계를 구축, 작물보호제(농약)의 가격안정에 큰 역할은 물론 품질경영시스템인 ISO 9001:2008을 인증하여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슬로건 아래 리스크 관리와 최상의 자율안전보건활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품질경영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고객만족을 실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임 3년을 훌쩍 넘긴 홍순근(55) 공장장의 일성이다.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조제 분쇄설비 신설 및 창고 증축 등으로 분명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주)농협케미컬 안산공장을 다녀왔다.

## ■ 효율적 품질경영시스템 운용, 고객만족 실천

1986년 문을 연 안산공장은 14,900㎡ 규모로 액상수화제, 입상수화제, 조립식 입제 등 다양한 약제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1994년 전자동 수도용 제조제 입제공장, 2012년 최신식 액상수화제 공장

을 설립, 1일 88.5톤, 연간 15,930톤의 대량생산 체계를 구축하면서 고품질 작물보호제 생산을 책임지고 있다.

다양한 제품에 대한 대량생산 및 저가 안정공급 체계를 구축하면서 작물보호제의 가격안정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는 안산공장은 리스크 관리와 자율안전보건활동을 유지하고 있으며 내부 품질검사, 시스템의 사후관리 심사, 경영검토, 지속적인 개선 및 제언의 활성화 등 품질경영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고객만족을 실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부자재 전수검사 및 유통농약 발취검사 강화, 피드백을 통한 지속적인 사후 품질 개선을 추진하는 등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최상의 품질보증, 원·부자재 다변화를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 제품 혼입리스크 예방 등 다방면의 품질관리 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제언제도 활성화를 통한 공정개선, 생산로스 축소, 불용자재

최소화 등 생산성 향상을 통해 가격인상 요인을 자체 흡수하고 있으며 고품질의 작물보호제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실익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타사와의 차별화 요소를 묻는 질문에 홍공장장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총 인원의 40%에 해당하는 직원이 위험성평가 TF팀에 속해 있으며 연 1회 정기 및 수시평가를 실시하여 자체적으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하고 “안전은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지켜 나가야 한다는 모토아래 월 2명의 안전지킴이를 선발하여 현장을 정기적으로 순회 점검하여 개선사항을 조사, 공람하는 ‘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하는 등 위험성 및 안전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 재해 없는 ‘클린사업장’으로 인정받아

농협케미칼 안산공장은 2014년 7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았다. ‘위험성평가’는 산업현장의 위험하고 유해한 요인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파악해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활동으로 2013년 1월 도입된 선진 산업재해예방활동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관내 10만8273개 사업장 가운데 41번째로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화학제조업계에서는 최초이다. 홍공장장은 “내부에 ‘위험성평가 TF팀’을 구성하여 목표와 세부 방침을 설정, 월 1회 이상의 꾸준한 회의와 내외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험성평가표 실무자료를 작성하는 등 위험 요인들을 자체적으로 개선하여 산업재해에



[사진] '15년 산업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1년차 사후심사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 후 안전·보건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

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부연한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무재해 8배수 목표를 달성한 것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무재해 인증패를 수여받았다. 무재해 8배수 달성 인증기간은 2003년 8월 4일부터 2014년 10월 17일까지로 영업일 기준 3,040일이며 약 11년간 무재해운동을 추진하여 재해 없는 클린사업장을 이어나간 것이다. 또

올해 7월에는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을 맞아 고용노동부 주최, 안전보건공단 주관으로 열린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인 고용노동부장관상을 받았다.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위험성평가 인증을 받은 전국 5,630개의 사업장 가운데 가장 우수한 사업장으로 선정된 셈이다.

최근에는 안산공장에서 생산하는 비선택성 제초제인 ‘푸레스타’액상수화제를 몽골에 수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몽골의 무역업체 MSM(Mongolian Star Melchers)에 50만달러(한화 약 6억원)상당 규모의 납품을 했고 지속적인 수출을 하기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홍공장장은 또 지역 및 농업인과의 공조에 대해 “늘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한다”면서 “매년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 일손 돕기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생산팀 주관 하에 인근 화성지역에서 꾸준히 농촌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하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업 노동력 감소로 간편하게 살포할 수 있는 정제형태(직접처리정제, 수면부상성 입제 등) 및 무인헬기 약제 등 다양한 생력화 제품을 생산, 공

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심지 소비자에 대해 홍공장장은 “빈틈없는 안전관리 앞에서 작물보호제는 절대 위험하지 않다. 안전하게 생산된 제품이 농업인의 손을 거쳐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게 된다”면서 “세간의 부정적 시선과 잘

못된 인식과는 다르게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있어 작물보호제는 꼭 필요한 필수자재”라고 설명하고 “작물보호제는 독하고 나쁘고 위험한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하루빨리 바로 잡혀야 그 혜택을 소비자가 향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㉞

## ■ 미니 인터뷰 / (주)농협케미컬 홍순근 안산공장장

### ■ 지난해 말 재해 없는 클린 사업장으로 인정받는데 이어, 2년 연속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내셨는데 그 소회와 의미는?

2014년은 농협케미컬 안산공장이 안전관리에 있어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지 않았나 싶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된 무재해 8배를 달성하였고, 더불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이라는 큰 성과를 이루어냈으니 말입니다. 유해위험요인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전 직원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고자 '13년에 위험성평가 도입을 결정하고 TF팀을 구성하여 실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자율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것인데 생산 업무를 함과 동시에 담당하는 파트의 안전까지 개선하는 업무까지 하다 보니 위험성평가 팀원들의 과부하는 피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팀원들에게 위험성평가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과 함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라는 큰 뜻을 이해시키고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직원 간 단합을 견고히 함으로써 지금의 성과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 ■ 최근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가 심화되고 있는데, 지속적 리스크 관리와 안전 보건활동을 유지할 위한 방법이 있다면?

유독물질이나 위험물질 등 화학물질안전법에 의

해 관리되어야 하는 물질에 대하여 환경안전관리자의 관리 하에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협케미컬 전 사업장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가 격월 운영되고 있으며 안산공장은 20여 가지의 안전·보건 체크리스트를 일일관리하고 있습니다. 작업환경 측정 등의 전문적인 관리 분야는 외주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일반 및 종합검진 실시를 통하여 보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사적 안전관리를 위해 위험성평가와 더불어 안전지킴이 제도를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올해 주요 계획을 주신다면?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제조제 분쇄설비 신설, 창고 증축 등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을 위해서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 환경 안전 측면에서의 완벽을 추구함으로써 적기 생산 및 공급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㉞

